

Awana Column

하늘의 단체

얼마 전, 나는 아들의 어린이집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치러지는 행사였습니다. 보통은 아내가 참석하는데, 그 날은 아내의 부탁으로 내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사진 전시회 이외에도 케잌 만들기, 비누 공예, 사진 찍기 등, 다양한 코너가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코너를 완수한 사람에게는 어린이 집에서 만든 가방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나와 아들은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모든 코너를 완수했습니다.

아들은 완수 확인증을 들고 어린이집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선물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선물로 받아든 아들은 곧장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나는 아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느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그림과 가방을 번갈아보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는 듯하더니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선물로 받은 가방에는 작은 그림 조각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조각들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 일부를 모아서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은 가방에 인쇄된 그림 조각들 중에 자신의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어느 부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그림 앞에서 가방에 인쇄된 그림 조각들을 꿈꼼히 찾아보던 아들은 드디어 자신이 그린 그림 조각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두 가지 모습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지인들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웃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기록된 이름에 관한 기쁨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절히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확인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즐겁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즈음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 죽어야 산다는 복음의 본질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어와나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기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
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단 1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눅 15:7)

Awana Korea
대표 이종국 목사

